





오성산

#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장정

8월 25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화국무력에 대한 평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 위대한 평양의 슬하에서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뜻 깊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 것은 이날이 있어 공화국의 자위의 군력이 역적으로 다져지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진전을 위한 넓은 앞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안녕을 위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데덕산초소를 또다시 찾으셨을 때이다. 이날 그이께서는 감시소까지 오셔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면서 그들에게 온갖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제 는 쉬셨으면 하는 간절한 청을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

어느해의 12월이었다. 밀고 험한 외진 곳에 자리잡고있는 한 중대의 병사들은 기쁘기도 하고 놀랑기도 한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많은 눈이 내려 길이 다 막혀버렸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대를 찾아 오신 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대를 떠나신

는 없이 그저 하얀 눈무지가 굴러오는 것 같았다. 차가까이로 다가서던 일군들은 그 만 굳어진듯 그 자리에 멈춰서고말았다. 차에서 내리시는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던 것이다. ... 부대지휘부에서 하셨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병사들의 가슴을 더욱 울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실 이번

엔제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덟 번째로 철령을 넘으실 때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제 는 그만 철령을 넘으실것을 말씀올렸다. 일군들의 속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내놓으셨었다. 나도 그 령이 사남고 험한 명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도 자꾸 철령을 넘나드는것은 철령너머에 사랑하 는 나의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며 조국의 방신을 지키고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언 땅에 배를 대고 작진을 지켜보며 밤을 지낼 때 무엇

은 사랑과 은정만을 받아안 기만 하고 해놓은 일은 너 무도 적다는 생각, 후대들 을 위해, 조국의 미래를 위 해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의무감으로 잠 못 이루었다. 이제 우리앞에는 오직 나의 임무가 남아있다고 생 각한다. 우리 자손들, 자라나는 세 세 대들에게 당과 수령을 절대적 으로 믿고 따르 는 혁명적신념을 물려줌으 로써 후대들이 조국과 인민 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 쳐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 는데 있는 힘을 다 바치는 것이다. 하여 우리들을 값높은 인생의 절정에 내세워준 위대한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참된 전사로 생을 빛내어졌다.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을 생각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이 최고사령관을 생각하며 온몸이 얼어 드는것도, 온몸이 물크리듯 제물 쿠는 무더위로 참아내며 전연초소를 지키고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들을 자주 찾 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 겠는가. 결코 그럴수 없다. ... 진정 병사들에 대한 이렇듯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 에 높고 험한 산밭을 넘고넘으시며 병사들을 찾아 시찰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 자주와 애숙, 애국과 매국

## 자주적인민으로 존엄함이 산다



조선민족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어주시고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민족사는 세계를 이어 끊임없이 빛을 뿌리고 있다.

우리 겨레가 터친 해방민세의 합성으로 산천초목도 감격에 설레이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76년세월이 흘렀다. 파란많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숨겨가던 민족의 운명이 구원된 력사의 8.15가 있어 비로소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존엄함이 자주적인민으로 태어날수 있었음을 이 나라 인민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오늘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존재한다. 그들마다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 있고 또 거기서 제 나름대로의 기쁨을 느낀다. 허나 공화국인민들과 같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의 드높은 긍지, 그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자부심이고 영예이다. 지정학적위위로 보면 조선은 대국들의 영향을 받기 쉽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것을 승명론처럼 받아들여야 했던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수난 많던 망국의 운명에 처한 불쌍한 조선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예라게 호소도 하고 칼로 배를 갈랐어도 누구 하나 동정의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던 식민지약속민족이 오늘 세기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존엄함을 자주강국의 자주적인민으로 갖추어왔다. 실로 하늘땅같은 차이가 아닐수 없다. 오늘 령도도 크지 않고 인

수도 많지 않은 조선에서 울리는 사변적인 소리에 지구가 뒤흔들리고 조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계의 비상한 초점을 모으고있다. 적대세력들의 그 무슨 《고강도제재》나 압박봉쇄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자주와 정의를 존엄함은 공화국인민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서방언론들이 《자기의 존엄, 자기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모르며 목숨다해 지키는 말 그대로 존엄에 사는 인민》이라고 찬양하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라 하겠다.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영예는 한번 연약하다고 하여 영원한것이 아니다. 잃었던 나라와 인민의 존엄을 되찾기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고수하

고 빛내이는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부족한것도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지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면 뚝뚝 못할 난관이 없으며 절명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은 이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확고한 신념으로 새겨져있다. 절세위인들을 수령으로 모시었기에 공화국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온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운 자주적인민, 영웅인민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백년 들느니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누구든 공화국인민이 자기의 성실한 땀과 지혜를 바쳐 이루어놓은 창조물들을 보면 자주적인민의 보람과 긍지가 어떤것인가를 잘 알수 있을것이다. 무엇이 좀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여 남을 쳐다보고 남의 손을 빌어 이 땅에 무엇이 마련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이 값높은 자주적삶을 누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엄과 영예를 한껏 느낄수 있을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공화국인민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함으로써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강도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놓았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마음대로 통략하는 적대세력들의 행태가 그 어느때보다 로판되고 적지 않은 나라 인민들이 자기를 지킬



조국해방 76돐을 맞으며 공화국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 진행

# 매국노들이 활개치는 세상

76년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위에서 해방된 날인 8.15에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한 친일파청산문제를 시골벽적하였다. 이날에 발표된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가 그 발단으로 되었다. 그는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역대 보수 《정권》을 비롯한 역대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서 《친일파들은 대대로 명명거리며 살고 독립운동가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있다.》, 《친일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 친일매국의 계주봉을 이어온 역대 보수 《정권》들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찌기 규정하였듯이 역대 남조선의 보수정권자들은 한반도에 살아도 찌치지 않는 친박한 친일매국노들이었다.

가관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물론 보수언론들과 사이비문학객들까지 나서 《마무가내 기념사》, 《수많은 국민을 친일파로 내몬것》,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고야대고 현 당국의 《관여》도 밝혀야 한다며 법적대고있는것이다. 일제의 식민지강점으로부터 조선이 해방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친일파청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다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남조선정권이 한심하고 끄지없고 저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강변하는 보수세력들의 행태가 경악스럽다. 《자치론》을 들고다니다가 《상해리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지 반년도 못되어 쫓겨난 너털한 인간축물이다. 해방후에는 민족의 의사를 거역하고 미국의 배후종벌에 한사코 《단독정부》를 조작하고는 립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군부의 요직에 《간도르벌》의 간판을 쓰고 항일유격대와 반일독립군을 악착스럽게 《도벌》하는데 앞장선 김석원, 정일권, 백선엽, 리웅준, 리종찬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을 들어앉혀놓았다. 그의 집권시기 《국무총리》를 지낸 6명중 3명, 법무부 장관 8명중 5명, 검찰총장 6명중 5명, 치안국장 4명중 3명, 합동참모본부 의장 4명중 4명, 육군참모총장 8명중 8명이 모두 친일파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친일매국역적으로서의 리승만의 정체를 똑똑히 알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4.19인민항쟁에 의하여 울려난 민족의 새 싹을 5.16군사쿠데타로 짓밟아버리고 7.4공동성명으로도 밝아오던 통일의 서광을

던 일본군장교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한국사를 외곡하던 장본인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알랑한 지식을 앞세운 친일인사들이 독립유공자를 시시해왔다. ... 친일파들의 가장 과격한 행위로는 이들이 독립유공묘소를 받고 국립묘지에 빠뜨리 누워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친일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고도 남은 우리 현대사라 하겠다.》라고 개탄하였다. 박정희가 얼마나 친일매국에 열을 올렸으면 그가 김계규의 총알에 비명횡사하였을 때 일본군유족들이 《마지막항군이 죽었다.》고 비통해마지 않았겠는가. 우리 민족의 천년속적 일본의 제침략동에 걸잡이가 되어 날뛰어온 리명박역도 와서 남쪽땅을 맡고있는 이 미 널리 알려저었다. 이자의 친일굴종사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일본정부 《특사》 자격으로 남조선에 날아온 전 일본수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얽매어있으면 오늘이 불

행해질수밖에 없다.》느니,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느니 뽀니 하는 너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세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협력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아양을 면 사실을 놓고서도 알수 있다. 오죽했으면 역도의 친형인 리상두이 《리명박은 벼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실토 하였겠는가. 바로 이런 리명박이기에 《대통령취임사》와 《3.1절기념사》 등 여러 기회에 친일명말을 거침없이 뽀냈으며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에 서슴없이 나섰다. 2010년 4월 일본반동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것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정식 발표하였을 때에는 《조용한 외교》를 떠들면서 그에 눈을 감아버렸다. 미국의 후원과 사기협정의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타고갔으며 《유신》독재부활을 꿈꾸다 초불항쟁에 의해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의 친일굴종행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유신》독재자를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을 미화분식하는 력사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노들을 력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올려앉혔으며 리명박집권시기 각계층의 격렬한 반대투쟁으로 체결되지 못하였던 일본의 군사정비공유 《협정》을 맺는 매국노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 친일파를 보호하고 내세운 미국

남조선에서 이미전에 없어졌어야 할 친일청산소리가 아직도 사회적문제 대두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때문이다. 미국은 저들의 남조선지배를 합리화, 정당화, 현치화하기 위해 친일분자들을 의도적으로 청산하지 않았으며 해방후 남조선의 《제헌의회》(당시)에서 만들어졌던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무산시키고 그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던 《반민특위》도 강제로 해산시켰다. 또한 《관계개선》, 《미래지향》을 들먹이며 남조선의 역대 보수당국자들을 친일부역으로 적극 내몰았다. 오늘날 미국은 《동북아시아외교정책의 초점은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데 있다.》 본사기자 배영일

## 굴종의 력사는 오늘도

8.15적후 남조선은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남조선에 미국이 철저히 예속시켜왔다. 미국은 저들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합리화, 공고화하기 위해 친미사대매국노들을 내세워 꼭두각시정권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배후조종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치욕과 굴종을 강요하였다. 나라의 분열을 반대하고 북남총선거에 의한 단일정부수

립을 갈망하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미국에서 손매물려 키운 오랜 친미주요인 리승만을 내세워 끝내내 《단독정부》를 조작해낸것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덴 델레스가 《내가 제임종에 미중양정부의 해외활동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것은 5.16쿠데타였다.》고 고백한 사실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미국이 친미주요자들을 통한 식민지지배확립에 얼마나

이 출을 추며 랑동을 부렸지만 남조선당국은 《행정협정》에 코를 빼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남조선은 사상문화적으로도 미국에 종속되어있다. 미국에 대한 숭미, 공미사상이 오래동안 주입되어 위정자들과 극우보수세력들은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것처럼 생각하고있으며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사람들을 범죄와 타락의 길로 끌고가고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이야말로 굴종의 땅, 예속의 땅이라는것을 웅변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혈맹》, 《공군한 동맹》이라는 말이 요란스레 울려나와도 지배와 굴종의 관계를 결코 갈출수 없다. 본사기자 김영범



지배와 굴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